

연체율 증가, 정부 규제 지속에 지방은행, 대출 문 걸어 잠갔다

5대 지방은행, 지난달 가계대출 신규취급 신용점수 평균 891.6점 전북은행 제외하면 평균 921.8점 4대은행 평균과 불과 15.7점 차이 2금융권 대출 증가... 이자비용 ↑

지방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대출 연체가 늘면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고, 정부도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준(準)고신용자의 주요 대출 창구였던 지방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 891.6점이다. 정책금융상품 및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전북은행을 제외한 평균은 921.8점이다.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평균인 938.5점과의 차이는 15.7점에 그쳤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949점과 958점을 기록해 4대은행보다 대출 문턱이 높았다.

주요 은행에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지난 2021년 신용점수제 도입 당시 신용등급 1등급의 '초고신용자'를 942~1000점으로 환산했다. 준(準)고신용자에 해당하는 2등급~3등급은 각각 891~941점, 832~890점으로 환산했다. 지방은행들은 2~3등급에 해당하는 준고신용자의 대출 창구로 가능했는데,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초고신용자 이외는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것.

지방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의 모습.

/뉴시스

빠르게 늘어나는 연체율 때문이다. 각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지방은행의 연체율 평균은 1.19%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0.18%포인트(p) 오른 수준으로, 같은 기간 4대은행 평균인 0.36%와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지방은행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는 2금융권 대출로 이동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직전월보다 2조 3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폭에서도 전월(1조 4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제 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10% 전후로 형성된다.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연 5%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는 통상 연 10~

19% 수준으로 다소 높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대출수요자의 이자부담도 커진다.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 탈피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도 계속되는 대출 수요 증가에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목표 등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명확한 가운데 은행권 전반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라며 "특히 지방은행들은 연체율 증가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신규대출 취급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6억 미만, 2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늘었다

서울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달 송파 20억 이상 비중 54.9%
광진구·관악구 3억~6억 비중 늘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달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함께 입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면서 3억~6억원 사이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매매거래 비중은 지난달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19.5%로 올해 1월 15.8%에서 높아졌으며, 20억원 이상 역시 13.6%로 올해 1월(10.4%) 대비 비중이 상승했다.

반면 6억원 이상에서 20억원 미만 사이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연초 대비 모두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2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같은 기간 36.1%에서 54.9%로 증가했고, 강남·서초·용산 등에서도 2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광진구와 관악구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비중이 늘었고, 동작구 역시 3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시장은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

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환경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가격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역별 거래 구조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인천은 지역별로 차별화가 됐다. 용인시는 반도체 호황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9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19.0%에서 28.3%로 확대됐다. 특히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비중은 14.6%에서 20.0%,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비중도 연초 4.0%에서 7.2%로 늘었다.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2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6.7%에서 11.4%로 확대됐다. 하남시 역시 신주거지와 서울 접근성이 맞물리며 12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0%까지 높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이기도는 서울 접근성이나 주요 산업·업무지구와의 연계성, 지역별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거래가 집중되는 가격대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은 가격대별 거래 비중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거래의 중심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3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 33.8%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억원 이상은 비중이 2.5%에 불과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호금융 '수신 경쟁' 4%대 예·적금 등장

신탁, 12개월 만기 예금 금리 4.25%
새마을금고 18곳서 4.21% 상품 선보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증시로의 머니브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금리인상 시 은행권과의 수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예수금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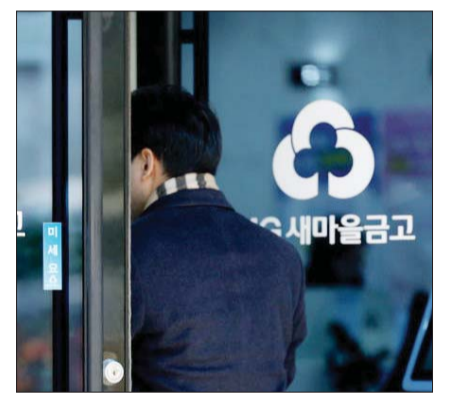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탁·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대 이상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12개월 만기 신탁 예금금리는 최대 4.25%, 새마을금고는 4.21%까지 올랐다.

신탁의 경우에는 군산필마신탁이 최대 4.25% 금리의 '한아름정기예탁금' 상품을 제공한다. 공주신탁은 4.10%, 흥성신탁은 4.00% 금리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을 선보인다.

새마을금고는 다수 지역 금고가 금리 연 4.21%에 달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총 18곳의 지역 새마을금고가 최대 4.21% 금리의 예금 상품을 내놨다. 북한산새마을금고, 한누리새마을금고, 예스새마을금고, 북한산새마을금고, 변영로지점 등이 제공하는 'MG더뱅킹정기예금' 상품이 대표적이다.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도 있다. 압량신탁은 '하너더적금' 상품을 12개월 만기 7.00%에, 참우리신탁은 5.50%에, 신탄진신탁은 4.70%에 제공한다. 정읍새마을금고는 'MG희망나눔결음마적금' 상품을 최대 12%에, 우리새마을금고는 'MG뉴정기적금'을 8.50%에 선보인다.

현재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보다 높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예금 상품은 안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최대 금리는 연 4.00% 수준이다. 1금융권에서는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3.70%로 가장 높다.

상호금융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식 시장 '머니브'다. 주식시장 호황기에 주식장으로 유출됐던 자금을 예적금 금리 상승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신호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은행권 수신 경쟁이 발생한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뒤 수신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최근까지 자연적으로 고금리 예금이 감소했다. 그런 시기가 이어지다 보니 자금조달 비용구조가 좀 저비용화 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합리적인 금리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3년간 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준다”

최고금리 19.4%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22일 출시... 19~34세 대상
기업·농협·신한 등 14곳서 가입 진행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 최고 19.4%의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가입·심사 일정 및 세부 가입 절차를 사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최고 19.4% 실질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가입신청을 진행한다. 1차 가입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명 업일(22일~26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 3년간 최고 19.4%의 실질금리를 적용하는 적금 형태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이번 가입신청을 시작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가입 신청

을 진행한다.

이번 가입신청은 취급 기관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가입기간 동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에서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 오는 12월부터는 토스뱅크에서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취급기관별 금리는 공통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로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7~8%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요건에는 주거래은행, 당행 청약통장 가입 등이 적용되는 만큼 가입기간 별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재직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군 장병 급여도 소득으로 간주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신청 시에는 일반형·우대형 관계

없이 신청을 받으며, 소득 심사와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해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으로 분류된다. 단,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상품 유형을 평가하는 등 가입 절차에 차이가 있다. 우대형 적용자의 경우 최종심사 결과 통보 시 우대형 가입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6~8월 최초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상품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그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적용하나 일시 납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하다.

청년미래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에서는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만기해지 예상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